

새만금 예산복원 위한 도민과의 연대, 가장 의미 커

Q.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특히 12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의회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도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이뤄졌고, 대외적으로는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기간 중 가장 치열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Q.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첫 여성 의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 우리 의회 첫 여성 의장이자, 취임 당시 광역의회 유일한 여성 의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을 닦은 만큼 앞으로는 여성의원들에게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의회는 현재 여성의원 40명 중 9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바라며, 제가 대답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 아무래도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도민과의 연대 활동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삭감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일방적 폭거입니다. 의원님들이 릴레이 단식과 마라톤, 총괄기대회 등 예산복원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 주셨고, 출향 도민까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주셨습니다. 예산복원 활동 중심에 의회가 있었고, 일정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Q. 반대로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도민과의 소통을 구체화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도민들이 의회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과 깊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 의장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 방법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 숙원인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연대해



의회 내부 조직개편·도덕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
민간단체와의 교류·연대활동 활발... 가장 치열
도민들과의 소통 구체화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워
지방의회 숙원인 조직권·예산권 확보도 과제로 남아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만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Q. 의회 도덕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데도 힘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회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기대하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은 높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징계 중인데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구금 상태에만 지급되지 않았는데, 출석정지 기간과 질서 의무 위반 때에도 지급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또 공무원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도 강화했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된 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Q. 의회의 새만금 예산 복원 활동도 인상 깊었습니다.

- 새만금 예산 파동은 도민에게 큰 허탈감과 자괴감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하고 잼버리 진실규명과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예산 복원 촉구 활동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릴레이 단식을 벌이고, 국회까지 마라톤에 나서는가 하면 도민들과 함께 총괄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주요 예산이 국토부 안의 67% 수준으로 복원됐습니다.

새만금 예산 및 사업은 앞으로 의회가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Q. 의회 역량 강화도 강조하셨는데, 평가를 하신다면?

- 의회 및 의원들의 역량이 곧 의정활동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관심 및 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전반기에 균형발전, 특별자치도 지원, 탄소중립, 새만금 특별 지자체 설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국립의정원 유치지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 등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집행부와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자부합니다.

Q. 임기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던 각종 인허가 및 행정 결정 권한이 전북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등 자치입법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협력해 전북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집행부 특례 발굴에 협력하는 한편 의회의 지역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해서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집행부 조직개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데는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설립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환경과 복지 분야에서 이전보다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기자

국주영은 의장이 걸어온 길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965년 입실출생으로 전북대학교 철학과 학사, 전북대 교육대학원 철학교육전공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제8대와 제9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돼 제9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10대·11대와 12대 연속으로 세 번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10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11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2대 전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시키는데 적극 기여

전북 여성의원 최초 도의장 당선... 의회 살림살이 빈틈없이 챙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통해 전북자치도의원으로서 위상 높여

전북 여성의원 최초로 도의장에 당선되어 도의회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 주목받았다.

도의회 의장 재임기간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데 적극 기여했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따른 대정부 투쟁에 도민들과 협력, 예산복원에 적극 노력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정당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기여했다. 제18대(2022년 7월~2023년 9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당선돼 전국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각종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이사를 역임했고, 전주 YMCA 이사로서 활발한 시민단체활동도 전개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